

농약 대용으로 사용이 늘고있는 염소 제재.. NaDCC
염소는 뿌리가 있는 근권에 60ppm이상이 되면
생육이 저해되며 100ppm 이상이 되면 심각한 생
육장해 및 고사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잎에 살포
했을 때 어떤농도가 적합한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생육저해 현상은 사용하는 포장
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NaDCC 150ppm이상을
사용 시 병해는 적어지지만 생육이 억제되는 경우
가 많아집니다.

자주 엽면 살포하거나 생육중에 배지에 관주하는
것은 약해가 없더라도 강한 생식생장을 유기하여
생육을억제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바라며, 어떠한 방제용 유사 제재도
효과가 떨어지므로 가급적 효과가 검증된 농약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출처] 농약 대용으로 사용이 늘고있는 염소 제재
사용에 관해|작성자 친환경과학농법

농사 이야기 작물재배의 모든...

원예작물 컨설턴트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딸기재배 하우스에서 시설 토양이나 배지 농자재 소독이 가능한 약제들 중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락스), 차아염소산칼슘 (크로칼키),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등이 있는데 이들 염소계 약제들은 잔류성이 높으며 일부 자재는 부식성과 산화력이 높아서 일부자재(비닐, 부직포 등)는 소독이 불가하며 토양이나 배지의 소독 후에도 충분한 세척 필요합니다.

시중에는 락스와 NaDCC 등 염소계 약이 많이 시판 사용되고 있는데 작물에도 피해가 심하며 토양에도 피해가 심하므로 정확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산화염소로 분해 시 강한 살균작용으로 소독을 하지만 이러한 이산화염소를 넣기 위한 제재들의 특성과 성분이 달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판 차아염소산칼슘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강한 알칼리 반응을 보여 염소외에 알칼리의 살균 기능도 있지만 살아있는 식물체에 반응을 하게되면 뿌리나 잎이 타는 경우가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염소계 소독약제 중 몇년전까지 식자재 소독 용도로 사용되었던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을 식물 병해충 방제에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는 약장사들이 있어 심심치 않는 장해를 받는 사장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수년 전 이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를 잎에 살포하면 위황병과 탄저병, 흰가루병, 역병이 든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더욱 많이 사용하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사용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독약제를 식물에 처리 시 병은 나올지 모르지만 식물은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생육이 정지 되거나 약해가 나타나거나 생육부진을 가져오게 되므로 우리는 약제를 선택 할 때 잘 듣는다는 개념과 식물에 피해가 거의 없는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선택사용이 필요합니다.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은 십수년전에 정제를 수입하여 가지과작물의 세균성병인 청고병에 사용한 것이 효시였는데 약에 의한 휴유증은 매우 강하므로 살아있는 식물체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식물 건강에 좋을 줄로 사료됩니다.

[출처] 원예작물 컨설턴트

딸기재배 시 배지나 토양 소독에 많이 사용되는 약제는 밧사미드, 쏘일킹, 페로산, NaDCC 등이 있으며 특히 배지 소독 시는 약제의 사용량을 준수하여 관주 소독하는 것이 좋으며 락스 200배액, 크로칼키 1,000배액, NADCC 1,000배액이며 과산화초산 제재인 페로산은 100~200배액으로 관주합니다.

소독방법으로 염소계 약제는 1~2일간 밀폐하며 과산화초산은 그냥 나두어도 됩니다.

염소계 소독제는 처리 후 방법이 무척 중요한 데 이는 잔류에 의한 독성 때문입니다. 이 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 처리 후 배지나 토양에서 염소냄새가 조금이라도 나지 않을 때까지 씻어야 하는데 이작업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수반하는 중노동을 요구합니다.

토양이나 배지에 염소냄새가 나지 않게 충분히 세척처리를 하여야 되는데 1~2회로 씻어서는 아무 의미도 없으며 적어도 1주일 가까이 살수시설이나 관수호스,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씻어야 합니다.

저희 휴과사람들은 20여년의 원예용 비료

사업과 컨설팅 사업의 노하우



원예작물 컨설턴트